

## 제7강: 초기 바로크[1570~1630] 시대의 건축가

### ◆ 1교시: 초기 바로크 시대의 건축

#### ▲ 비뇰라와 스카모치의 건축 양식

비뇰라와 스카모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모치는 같은 이름의 건축가가 한 명이 더 있어서 퍼스트 네임을 붙여서 구분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둘 다 16세기 사람이고 매너리즘 건축가입니다.

비뇰라는 바로크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스카모치는 팔라디오의 유작을 많이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도면 정리, 미완성 작품 완공 등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스카모치는 매너리즘에 그냥 머문 사람이고 반면 비뇰라는 바로크로 넘어가는 가교를 놔준 전환기 역할을 한 사람이죠.

비뇰라는 고전 어휘에 충실한 정통 고전주의에 충실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예수회에서 근대 가톨릭에 맞는 교회유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평면을 완성시킨 건축가입니다. 르네상스 기독교 고전주의자라는 말을 썼죠

알베르티, 브라만테 등이 신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면 가톨릭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공격적인 전위대잖아요. 여기서 근대 가톨릭에 맞는 새로운 유형을 요구합니다.

비뇰라가 이것을 완성시킵니다. II Gesu입니다. 말 그대로 이탈리아어로 남성 정관사가 II, Gesu는 예수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내에 굳건히 서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하고 동시에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건물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로크에 중요한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내는 물론이려니와 프랑스를 위시한 다른 가톨릭 국가들의 17세기 바로크의 모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연속공간과 강경주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바로크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것을 최초로 만들어 낸 건축가입니다. 책도 썼는데요. 제목에서도 책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5도라는 것 자체가 고전주의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말 자체도 규범집입니다. 다시 고전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탈은 종교개혁 시기의 어려운 시대의 산물이므로

다시 가톨릭으로 안정이 된 시기에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서 바로크에 맞게 각색하자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나 로마노 등의 매너리즘 건축가들과는 기본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건축 중심이 베네치아 지방으로 옮겨 가는데요.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벗어납니다. 16세기 후반부에 로마가 건축적 공백기에 해당이 되는데 비올라가 잘 지키면서 많은 수의 작품은 못 남기지만 바로크의 효시를 몇 개 남기면서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의 제자들이 초기 바로크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매너리즘 말기에서 바로크의 전환으로 상당히 유연하게 연결gi 준 중요성을 갖는 인물입니다.

사진을 보면 첫 번째 그림 509, 그것이 정통 고전주의에 가까운 예이고 나머지가 연속공간과 장경주의를 보여줍니다. 509는 장식 경향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고전의 기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듯하고 비례적 안정감이 있고 기본 5도에 충실합니다. 반면 510 같은 경우 진입부에서 상당히 긴 여정의 공간을 지냅니다. 원으로 빙 돌아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사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진입부에서 연속공간을 시도했고 빌라 줄리아에서는 평면을 보면 실내기능, 기하형태, 공간의 물리적 성격,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혼합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기능은 계단, 전실, 로지아(loggia), 복도, 열주복도, 님피움. 님피움은 그림 512입니다. 분수가 있는 작은 앞마당입니다. 실내기능이 다양합니다.

기하형태도 원과 사각형을 크기를 달리하면서 다양화했고 공간의 물리적 성격은 일직선, 돌아가기, 멈추기. 숨기기. 트이기. 틀기, 높이차이, 실내외 교대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놀이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건물의 공간성격을 논리적 성격으로 규정짓는 건 재밌는 시도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공간들의 파노라마로 구성됩니다.

연속공간의 내용들입니다. 옛날에 라파엘의 건물에서 초기 현상이 조금 나타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물리적 성격은 축을 따라서 진행된다 보면 여러 다양한 공간들이 나타납니다.

장경주의는 그 공간을 위한 중간장치들입니다. 512를 보면 앞쪽에 동그란 반원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하나의 배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용 무늬가 새겨진 것이 보이죠. 이쪽에 서서 반대편 배란단을 보면 하나의 무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반대도 가능한 거죠. 아

래로 내려다보면 아래로 무대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연속공간이 감상되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공간을 다양하게 장식하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은 이런 공간을 어떻게 감상할지의 형식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높낮이 차이 없이 동일한 고저차로 고도위에 놓고 일직선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빛 차이와 재료의 투명차에서도 보여줄 수 있죠. 거기서도 건축가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장경주의 기법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은 설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건물입니다. 역사를 빼고 순전히 설계기법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숨어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장경주의의 연속공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산 안드레아를 모델로 삼은 건물은 알베르티의 것과 차이점을 보이죠. 둘 다 선형공간과 중앙 집중형 공간을 혼용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본 골격은 크로싱을 중심으로 돔을 얹고 강한 중앙 집중성을 기본 공간으로 갖습니다.

네이브를 옆으로 늘어뜨립니다. 선형공간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둔 것까지도 산 안드레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산 안드레아는 각 예배당의 출입구가 넓었다면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일어났죠.

선형공간에서 가지가 종방향으로 나가면서 횡방향의 선형공간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는 출입구가 작지요. 속에서 공간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죠. 결국 예배당의 닫힌 공간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예배당 내에서 다시 종방향으로 작은 축이 생기면서 아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내에는 세 개의 종축이 생기면서 선형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라틴크로스의 부활, 선형성의 강조입니다.

이런 것이 다시 가톨릭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식주의가 나타나죠. 예수회에서는 검소한 실내공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구는 어떤 쪽으로든 있었지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빛, 특히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르네상스 때는 이것 자체가 작아지죠. 크로싱의 돔 자체가 작아지죠. 브로넬레스키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빛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중요성을 줄이는 것인데 다시 천장 빛이 증가하면서 중세 고딕으로 되돌아가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세주의의 부활인 거죠. 실내 조도를 보면 하늘 조도가 땅보다 강한 것이 중세 가톨릭 성당의 특징이었는데 그것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

죠.

또 하나는 화려한 장식입니다. 예수회에서 요구했던 것과는 조금 어긋난 것일 수도 있죠, 비뇰라의 원안에는 이 건물은 화려한 실내장식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백년 후쯤에 더해진 겁니다.

어쨌든 비뇰라가 장식 자체는 안 했지만 벽채구조가 실내를 주도하게 되면서 장식이 놓일 만한 바탕면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회가 요구한 검소하게 자리잡은 가구식 구조로 해야 합니다.

벽채 구조를 검소하게 놔두면 사실 심심하죠. 완전히 미니멀리즘으로 가던지 노출 콘크리트에다가 빛을 실어서 장난을 하지 않는 이상 벽채 구조를 그냥 놔두는 것은 심심할 수 있죠.

비록 예수회에서 검소한 공간을 요구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켜야만 하는 것인데 이 둘이 상충될 경우 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회에서 가구식으로 할지 벽채로 할지에 대한 지식까지는 없었고 비뇰라가 여기서도 갈등을 했던지 생각을 잘못했던지 인거 같습니다.

벽기둥이라든가 돌출 정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장식이 없었던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나중에 바로크가 융성하면서 장식이 후대 예술가들에 의해서 많이 더해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천장 채광을 강조합니다. 517 보면 르네상스 때 보면 작았던 것이 커집니다. 드럼에 창을 크게 내서 실내 빛의 유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이 비뇰라의 예입니다.

비뇰라는 완전히 바로크 건축가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매너리즘 건축가도 아닙니다. 자리매김하기가 애매한 건축가입니다. 태어난 해도 치면 매너리즘 건축가이고 분류학적 경향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크의 문을 연 건축가로 이야기합니다.

#### ▲ 포르타의 건축 양식

포르타입니다. 바로크 건축가들은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와 비뇰라의 제자였습니다. 비뇰라가 일찍 죽습니다. 1507년에 태어나서 73년에 죽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오래 살았지만 바로크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깐요. 그것을 이어준 것이 포르타라는 건축가라는 겁니다.

로마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면서 비뇰라의 사후에는 로마의 수석 건축가가 되는 등 16세기 말기의 로마 건축을 이끍니다. 비뇰라가 사망한 이후 로마 건축계는 힘들지요. 그 혼자 로마 건축을 힘들게 지탱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가 죽고 나자 탁월한 건축가가 없었다는 겁니

다.

그나마 있었던 사람이 폰타나와 볼테라 정도입니다. 3인이 비올라 사후 로마 건축을 이끈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포르타가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포르타가 한 일은 크게 셋인데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유작을 완성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켈란젤로는 명성에 비해 살아생전에 고생을 많이 했죠. 조각과 달리 건축은 건물 전체를 다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주나 사회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건물 공사에 있어서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을 사후에 여러 건축가들이 맡아서 완공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이 포르타라는 겁니다. 비올라도 마찬가지로 미완성이 많았는데 그것도 완공시킵니다. 물론 자신만의 작품활동도 합니다.

미켈란젤로와 비올라는 건축양식으로는 많이 다르죠. 물론 미켈란젤로도 보면 매너리즘이지만 로마노와는 다르죠. 일정 부분 전통 고전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무게 있는 매너리즘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은 바로크를 탄생시키기에 적절한 토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에서 베르니니로 이어지는 16세기 로마 건축을 이어받는 거죠. 이 사람들 자체가 16의 로마 고전주의를 잇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바로크의 효시를 알릴만한 사람들이란 거죠. 미켈란젤로 작품을 완성시킨 예를 보면 성 베드로의 돔이 있죠.

그것도 물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지만 실제로 완성한 사람은 포르타였다는 겁니다. 돔이 완전한 반구가 아니라 위로 뾰족합니다. 눈에 잘 안 뜨일 정도이긴 하지만 약간 타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설계를 바꾸어서 포르타가 완공한 겁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물이 있죠.

비올라의 일제수도 평면까지는 비올라가 했는데 파사드는 교황청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의 사후에 포르타가 완성합니다. 비올라의 안을 완공시켰다기보다는 자신이 독창적인 안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포르타 자신도 작품을 많이 남깁니다. 산 안드레아 델라 발레, 도면에는 없는 건데요. 이것도 로마 시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크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건물도 몇 명의 건축가가 거쳐가며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평면을 포르타가 짠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올라의 영향이 강합니다.

포르타의 독창적인 작품은 533부터 534까지 나타난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533을 보면 이전과 다른 것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쉬운 것부터 보면 네이브와 아일 사이의 천장 높이 사이를 입면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소용돌이 문양을 넣었습니다. 팔라비오는 페디먼트를 조각냈지만 그는 여기에 소용돌이 문양을 넣었습니다. 이 문양은 상당히 가소적입니다. 가소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 번에 빚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자기적인 특징인 겁니다. 도자기는 특유의 소리가 있잖아요. 조형적으로 보면 가소성을 갖기 땀누에 나는 소리입니다. 서양 건축은 돌 건축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돌을 다루는 경향들이 다 다릅니다.

바로크의 큰 특징이 바로 가소성입니다. 바로크 건축물들은 돌의 성질이 흥겹습니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마치 도자기 같습니다. 알베르티가 먼저 쓴 것이 소용돌이입니다만 가소적으로 처리해서 대효적인 것으로 제시한 사람은 포르타인 겁니다.

1층을 보면 제일 바깥을 보면 낮은 사각벽 기둥 두 개를 썼어요. 그 다음을 보면 낮은 사각벽기둥 하나에 원형 벽기둥 하나, 출입구를 보면 반형 벽기둥 2개를 씁니다.

5도의 위계가 있습니다. 원형 벽기둥이 사각 벽기둥보다 높습니다. 사진이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사각 벽기둥도 낮고 높은 게 있지요. 낮다 높다는 것은 부조로 봤을 때 돌출된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는 낮은 사각 벽기둥 두 개에 반원형 벽기둥 하나, 여기는 반원형 벽기둥 둘, 위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출입구로 올수록 위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전 건축의 캐논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외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몰려 있습니다. 중앙 출입구로 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고 진짜 출입문도 큼니다. 중앙에 대해 모든 것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너리즘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 출입구로 모든 것을 집중시켜 강조하겠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포르타가 최초로 디자인합니다.

바깥 세상은 속(俗)의 세상이고 교회의 세계는 성(聖)의 세계고 성의 세계로의 진입, 유입을 강조하는 거죠. 조각처리 등도 집중이 되면서 가운데가 음영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시선이 중앙출입구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기독교적 열정을 강조하는 처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 534입니다.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중앙으로 갈수록 모든 건축적 처리가 강조되고 부재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포르타는 비록 정식 바로크의 시작은 아니지만 바로크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 겁니다.

#### ▲ 카를로 마데르노의 건축 양식

초기 바로크를 완성한 사람은 카를로 마데르노입니다. 마데르노는 상당히 실용적인 건축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내에 오벨리스크가 몇 개 서 있습니다. 그것이 16세기때 많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감독했다거나 성채 건축을 하는 등 상당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작품도 좀 남깁니다. 그의 작품이 539, 산타 수잔나입니다. 그는 독창적인 건축가는 아니었습니다. 533, 539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쌍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매로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포르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건물이지만 두 건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539가 훨씬 더 수직비례입니다. 53은 비례가 상당히 넓지요. 반면 539는 높이가 폭보다 커지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반원형 벽기둥입니다. 소용돌이 문양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반원형 벽기둥의 사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음영효과가 강해졌다는 거죠. 바로크적인 강조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이점입니다. 전체 구성은 세부처리에서 바로크적인 분위기를 확실하게 나타낸 겁니다.

전체 구성은 바로크의 효시이지만 실제 구체적 결과에선 아직 그 분위기까지는 못 간 겁니다. 이런 두 단계를 거쳐 바로크 건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마데르노의 건물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어휘를 많이 씁니다. 포르타가 그의 유작을 완성시킨데 반해 그의 어휘를 직접 갖다 쓰지는 않은 반면 마데르노는 오히려 그의 어휘를 썼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달집을 보면 아치가 온전하게 잘 있죠. 그러나 산타 수잔나의 경우 그것이 잘리고 다른 부재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미켈란젤론가 즐겨 쓰던 처리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인방을 받치는 구조부재를 보더라도 상당히 여러 부재가 겹쳐져 있습니다. 상인방을 받치는 창 프레임의 윗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중첩시킨 것이 미켈란젤로의 어휘 사용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이 정도는 콜라주나 몽타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당시로선 파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영향이 마네르노까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가 로마 교황청 건물이죠. 지금의 파사드와 네이브를 완성시킨 사람이 마데르노입니다.

평면 위쪽 그리크로스까지가 미켈란젤로의 돔이었고 그는 파사드는 못 만들었습니다, 입면 부분은 그리크로스의 위 바깥벽, 지금이 교황청의 뒷통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데르노가 그 아랫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실에 전체 파사드를 작업하죠. 여기가 교황이 가끔 나와서 손 흔들고 하는 곳이죠. 멀리 가면 돔이 보이는데 가까이서는 보이지 않죠,

543은 구성은 산타수잔나의 반복입니다. 집중성이나 완성도는 없이 산만합니다. 왜냐하면 비례가 우선 넓적합니다. 원래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잘 모르는 교황이 밀어붙인 것인데 마도르노는 탑은 못 세우고 기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업하다 보니 비례가 넓적해집니다.

베르니니가 나중에 이 탑을 세우다가 균열이 생겨서 중단하고 헐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남습니다. 평면을 보아도 양쪽 끝은 뒤로 이어지지 않고 뒤로 툭 튀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재를 사용한 것을 보아도 중앙으로의 집중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측면에 부재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전 파사드의 경계가 되는 데에는 반원형 벽기둥을 두 개 썼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로 줄어듭니다.

중앙 집중성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약해지는 애매한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마데르노만의 잘못이 아니죠. 교황청의 입김 등 외부적 요구가 심했습니다. 실내를 보면 출입구 부분이 커집니다.

독립공간이 아니라 전체 큰 공간에다가 세워놓는 정도입니다. 아일 조차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선형성과 중앙 집중성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는 건물 자체가 갖는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지만 마데르노의 작품성 측면으로만 보자면 시원찮은 거지요.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본 거지요. 작품성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건축가 개인을 보더라도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의 천재성에 비하면 마데르노는 훨씬 못 미치지죠.

네이브 쪽을 확장하려는 그 안이 교황 바오로 5세가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일단은 미켈란젤로의 것이 미완성으로 남았기 때문에 가톨릭 시대가 열리면서 완성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죠. 미켈란젤로의 돔이 갖는 중앙 집중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대 교황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였죠.

선형 네이브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돔만으로는 신도를 수용할 수 없으니 기능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선형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톨릭의 기본 유형이 선형공간이죠.



중세만이 아니라 선형공간이 가톨릭 성당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선형공간으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교황과 바오로 5세가 종교적 야심이 컸지만 정밀한 예술성을 따질 만한 감수성은 없었기 때문에 중간 모습이 상당히 애매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파사드이지요. 그것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만 얘기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로마와 기독교 두 개를 동시에 상징하는 건물이니깐요.

서양을 이루는 두 기둥인 고전주의와 기독교를 동시에 담아내는 건물이므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파사드는 그 중요성을 못 쫓아간 것으로 봅니다.

마데르노를 거치면서 초기 바로크가 완성이 되고 퍼져 나갑니다. 밀라노에 오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이 오목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층의 디테일을 보면 앞에서 보았던 미켈란젤로 어휘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558도 가톨릭 교회입니다. 밀라노는 기본적으로 산 로렌조를 비롯해 중앙 집중형 교회가 융성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인데 중앙 집중형으로 지었고 예수회의 요구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죠.

밀라노는 가톨릭 중앙정부와 예수회와 대치했던 지역이지요. 건축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림 556을 보면 바로크 기법이기에는 한데 델라 포르타의 경우, 마데르노의 산타 수잔나로 이어지는 로마 바로크 기법과는 다릅니다.

일단 오더를 쓰지 않았습니다. 포르타에서 마데르노로 이어지는 그 유형을 따르지 않았습다. 오더에 따라 중앙으로 집중하는 그런 위계와 음영 차이로 건축적 효과를 냈는데 이것은 같은 바로크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창틀이나 문에 장식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건축적으로도 독자적인 바로크 건축을 형성하는 겁니다. 건축가 개인으로 보더라도 마데르노와 리키노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물론 도시는 로마가 밀라노보다 크고 중요했죠. 그러므로 로마에서 활동했던 마데르노가 더 중요하게 볼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리키노와 마데르노는 라이벌 관계였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베르니니와 보로미니가 지독한 라이벌 관계가 되지요. 라파엘과 미켈란젤로도 그랬죠. 역시 마데르노와 리키노를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건축경향도 그렇고 로마와 밀라노의 두 도시 관계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로크 건축이 점점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림 562, 비얀코(Bianco)니다. 사람이름입니다. 화이트의 의미입니다. 비얀코는 제노바란 도시의 바로크를 완성시킨 사람이고 알레오티(Al iot i)는 파르마라는 도시의 것을 완성합니다.

초기 바로크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알리오테 같은 경우 로마 바로크 기법을 받아들입니다. 566의 경우 팔라비오의 영향을 이어받은 거죠.

앞에서 나왔던 팔라비오의 바실리카 건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기 바로크가 완성이 되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기 바로크로 넘어가겠습니다.